

대학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과 인지적 유연성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Dance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 Cognitive Flexibility

성소영
단국대학교 무용학과

So-Young Sung(soyoung0720@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과 인지적 유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무용지도 현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들이며, 최종분석에는 256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행위중심, 자연적 보상 셀프리더십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과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건설적 사고패턴 유연성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중심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중심어 : | 셀프리더십 | 인지적 유연성 | 건설적사고패턴 | 자연적 보상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leadership and the cognitive flexi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danc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dance instruction. Participants were the students majoring in dance who are enrolled in the dance department of the four-year universities nationwide and 282 data have been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analytical method for verification of hypothesis wa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be performed at a significance level of $\alpha=.05$. As the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gained. First, the constructive thinking pattern among the sub-factors of self-leadership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flexibility of preferred varieties which is a sub-factor of cognitive flexibility. However, the behavior-oriented and natural reward self-leadership did not have influence on the diversity preferred flexibility. Second, the natural reward and constructive thinking pattern among the sub-factors of self-leadership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flexibility of preferred complexity which is a sub-factor of cognitive flexibility while the constructive thinking pattern flexibility was shown as exercising a very powerful influence. But the behavior-oriented self-leadership did not have influence on the flexibility of preferred complexity.

■ keyword : | Self-leadership | Cognitive Flexibility | Constructive Thinking Pattern | Natural Reward |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리더십은 경영학이나 조직학에서 많이 거론되는 분야 중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의 리더십 연구들은 타인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리더십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그러한 연구들이 현대사회의 리더십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리더십 이론은 다분화,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타인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정, 통제하는 형태의 리더십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리더십이론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셀프리더십[1]이 주목받고 있다.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현대사회의 리더십 동향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연구의 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리더십은 Manz[1]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기존의 리더 중심의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달리 자신이 스스로 리드해 나가는 내재적인 형태의 리더십으로서 자기 성취욕이 강해지고 적극적인 행동과 남의 간섭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오늘날의 리더십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력을 키워야 자신의 과업이나 활동에 몰입수준을 높일 수 있다[2]. 관련 선행연구[3-6]에서도 셀프리더십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무용현장에서의 셀프리더십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적용가능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다[7]. 무용 활동이 통제와 강제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 할 것이다. 창의적 예술 활동인 무용은 무용수 자신의 자발적 의지력과 예술적 감동이 내재되어 있어야만 최고의 무용성과가 나타난다[8]. 이러한 의미에서 무용수의 셀프리더십과 성과와의 관계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무용전공자들이 셀프리더십이 충분하다면 그만큼 성과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용현장에서의 셀프리더십 제고가 요

구되는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최상위 리더와 중간리더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 할 수 있다[9]. 이유는 셀프리더십은 아무나 셀프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셀프리더가 되기 위한 무용전공자들 개인의 노력이 그만큼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용수 개인의 역할 충실도가 공연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개인의 깨우침이 중요하며, 이것은 곧 셀프리더십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8].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연구한 남원희[7]의 연구결과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직무긴장을 줄이고, 무용수의 혁신행동의 증가와 팀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한다고 하였으며, 무용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운옥[8]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이 자기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셀프리더십이 무용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용수가 무용활동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인지적 유연성인데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은 셀프 리더십화된 무용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태도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프로세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정의된다[9]. Bandura[11]는 인지적 유연성을 갖춘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홍숙지[12]는 인지적 유연성이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회피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 하였다.

관련 연구에서는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역할과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개념이 복잡한 사람이라 볼 수 있고, 자기 개념이 다차원적일수록 환경이나 역할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3]. 역할의 수가 많고 다양할수록 상황에 따라 이를 활용 하는 유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증

가한다[14]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지적 유연성의 개념에는 무용수가 무용이라는 예술을 공연이라는 상황에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이다[8]. 인지적 유연성이 있는 무용수는 무용(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자기개발적이며, 적극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기본적 전제를 가지기 때문이다. 무용은 기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주관적인 관념과 의미적인 차원이 깊게 내재된 분야이다[7]. 그러므로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정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13]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무용전공자들 또한 무용예술을 승화시키는 데 그만큼 유리할 것이다.

개개인의 행태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용현장에 최선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은 기본적인 차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분야에서 셀프리더십에 대한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셀프리더십과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의 문제 해결, 능력,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인지적 유연성과의 관계 연구는 더더욱 발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이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무용지도 현장에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서 필요성을 가진다.

1.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이 인지적 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무용지도 현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무용전공자의 행위중심 셀프리더십은 다양

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무용전공자의 자연적 보상 셀프리더십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무용전공자의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무용전공자의 행위중심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무용전공자의 자연적 보상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무용전공자의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전라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의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 전공자들로 하였다. 원활한 표집을 위해 먼저 각 기관에 문서 및 유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표집 하였다. 표집은 2011년 4월 20일 부터 2011년 6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80명을 표집 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280개의 자료 중 19개를 제외한 261개가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261개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5개를 제외한 256개의 지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98.8%의 높은 유효 분석율을 보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성	수준	인원(명)	백분율(%)
성	남	30	11.7
	여	226	88.3
	계	256	100.0
학년	1학년	51	19.9
	2학년	105	41.0
	3학년	44	17.2
	4학년	56	21.9
	계	256	100.0
전공	한국무용	56	21.9
	현대무용	71	27.7
	발레	129	50.4
	계	256	100.0

성별에서는 여자가 226명으로 88.3%의 분포를 보였으며, 남자가 30명으로 11.7%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무용전공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은 분포에서 기인한다. 학년에서는 2학년이 105명으로 41%의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4학년이 56명으로 21.9%, 1학년이 51명으로 19.9%, 3학년이 44명으로 17.2%의 분포를 보였다. 전공에서는 발레가 129명으로 50.4%의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현대무용이 71명으로 27.7%, 한국무용이 56명으로 21.9%의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셀프리더십이며, 하위변

수는 행위중심,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패턴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위중심은 '자기목표, 자기정계, 자기관찰 주도적 문제해결'을 의미하며, 자연적 보상은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을 비롯하여 자신이 일인자라는 느낌'을 의미한다. 건설적 사고패턴은 '상상적 경험, 자기대화, 신념관리'를 의미한다. 이 질문지는 하순복[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는 척도이며, 이를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문항 수는 행위중심 4문항, 자연적 보상 4문항, 건설적 사고패턴 8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지 척도화 구성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인지적 유연성이며, 하위변수로는 다양성선호 유연성, 복잡성선호 유연성, 2가지로 구성되어있다. 다양성선호 유연성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복잡성 선호유연성은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회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문지는 송보라 이기학 [16]의 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으며, 문항 수는 다양성 선호유연성 4문항 복잡성 선호유연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지 척도화 구성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이

표 2. 셀프리더십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

요인 및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	%분산	신뢰도
Factor1 행위중심 셀프리더십	행위중심1	.704	4.410	27.562	27.562
	행위중심2	.707			
	행위중심3	.668			
	행위중심4	.768			
Factor2 자연적보상 셀프리더십	자연적보상1	.626	3.223	20.144	47.706
	자연적보상2	.788			
	자연적보상3	.781			
	자연적보상4	.656			
Factor3 건설적사고패턴 셀프리더십	건설적사고패턴1	.733	3.098	19.362	67.068
	건설적사고패턴2	.766			
	건설적사고패턴3	.802			
	건설적사고패턴4	.729			
	건설적사고패턴5	.687			
	건설적사고패턴6	.677			
	건설적사고패턴7	.665			
	건설적사고패턴8	.542			

KMO=.929,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2537.992$, $df=120$, $p=.000$

용하여 측정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3.1 셀프리더십

[표 2]는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행위중심 셀프리더십, 자연적 보상 셀프리더십,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 이상이며, 전체 요인을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7.1%로 나타났다. KMO측도는 .929, 바틀렛 검정에서 X^2 는 2537.992, $p=.000$ 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셀프리더십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행위중심은 .818, 자연적보상은 .876, 건설적 사고패턴은 .912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계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타당성 및 신뢰성 있음이 판명되었다.

3.2 인지적 유연성

[표 3]은 인지적 유연성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성선호 유연성, 복잡성선호

유연성의 2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 이상이며, 전체 요인을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5.9%로 나타났다. KMO측도는 .873, 바틀렛 검정에서 X^2 는 857.348, $p=.000$ 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인지적 유연성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다양성선호 유연성은 .807, 복잡성선호 유연성은 .826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계한 인지적 유연성 측정도구는 타당성 및 신뢰성 있음이 판명되었다.

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의 통계 분석방법은 첫째, 수집된 설문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은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검사로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수의 인식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alpha = .05$ 에서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수에 대한 인식도

표 3.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탐색적요인

요인 및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	%분산	신뢰도
Factor1 다양성선호 유연성	다양성선호 유연성1	.523	4.203	52.540	52.540
	다양성선호 유연성2	.817			
	다양성선호 유연성3	.848			
	다양성선호 유연성4	.713			
Factor2 복잡성선호 유연성	복잡성선호 유연성1	.724	1.070	13.377	65.917
	복잡성선호 유연성2	.846			
	복잡성선호 유연성3	.778			
	복잡성선호 유연성4	.691			
KMO=.873,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857.348$, $df=28$, $p=.000$					

[표 4]는 연구 대상자들이 각 변수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3개의 셀프리더십 하위 변수 중 건설적 사고패턴(3.47±.69)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연적 보상(3.44±.77), 행위중심(3.3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2개의 인지적 유연성 하위변수 중 다양성선호 유연성(3.49±.72)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잡성선호 유연성(3.4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요인별 인식정도

		N	M	SD
셀프 리더십	행위중심	256	3.31	.73
	자연적보상	256	3.44	.77
	건설적사고패턴	256	3.47	.69
인지적 유연성	다양성선호유연성	256	3.49	.72
	복잡성선호유연성	256	3.42	.75

2.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5. 상관관계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1. 행위중심					
2. 자연적 보상	.709***				
3. 건설적 사고패턴	.639***	.649***			
4. 다양성선호 유연성	.470***	.507***	.657***		
5. 복잡성선호 유연성	.375***	.438***	.556***	.609***	

***p<.001

[표 5]는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과 종속변수인 인지적 유연성과 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수인 행위중심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변수인 다양성선호 유연성(r=.470), 복잡성선호 유연성(r=.375) 간의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자연적보상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변수인 다양성선호 유연성(r=.507), 복잡성선호 유연성(r=.438) 간의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건설적 사고패턴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변수인 다양성선호 유연

성(r=.657), 복잡성선호 유연성(r=.556) 간의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검증결과

3.1 셀프리더십과 다양성선호 유연성의 관계

[표 6]은 “가설 1.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3개의 셀프리더십 하위변수를 투입하여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변수인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건설적 사고패턴만이 p<.001 수준에서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중심, 자연적 보상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이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β=.56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 무용전공자의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가설 1-1. 무용전공자의 행위중심 셀프리더십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1-2. 무용전공자의 자연적 보상 셀프리더십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한편 투입된 3개의 셀프리더십 변수는 다양성선호 유연성의 설명력을 44.3%(R²=.443)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표 6. 셀프리더십과 다양성선호 유연성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b	β	t	
행위중심	.020	.021	.298	R ² =.443 F=66.928***
자연적보상	.113	.128	1.791	
건설적사고패턴	.526	.561	8.556***	

***p<.001

3.2 셀프리더십과 복잡성선호 유연성의 관계

[표 7]은 “가설 2.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규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에 의하면 3개의 셀프리더십 하위변수를 투입하여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변수인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연적보상은 $p < .05$ 수준에서, 건설적사고 패턴은 $p < .001$ 수준에서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중심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건설적 사고패턴 ($\beta = .483$), 자연적 보상($\beta =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 무용전공자의 자연적 보상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2-3. 무용전공자의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가설 2-1. 무용전공자의 행위중심 셀프리더십은 복잡성선호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한편 투입된 3개의 셀프리더십 변수는 복잡성선호 유연성의 설명력을 32% ($R^2 = .320$)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표 7. 셀프리더십이 복잡성선호 유연성의 관계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명	b	β	t	
행위중심	-.030	-.045	-.579	R ² = .320 F = 39.583***
자연적보상	.096	.157	1.986*	
건설적사고패턴	.315	.483	6.668***	

*p < .05, ***p < .001

IV. 논의

셀프리더십 이론들을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주도와 자기 동기부여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17].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에서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리더십이라 한다면, 셀프리더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셀프리더십은 일반적 리더십 과정과는 크게 구별되는 리더십으로서 무용현장의 무용수들에게 있어서 무용 활동

이나 성과에 크게 관여할 것으로 예측된다[7].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무용활동과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무용 활동은 과정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대학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은 인지적 유연성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검토해 보았으며, 그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첫째, 셀프리더십이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만이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무용전공자가 건설적인 사고패턴을 가질수록 무용 활동에 있어서 다양성선호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건설적 사고패턴은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고패턴을 의미한다[17].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며, 자기와의 대화 즉, 자기에 대한 이해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 따라서 무용전공자는 셀프리더십 강화 전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습관이나 패턴을 확립해야 한다[15]. 또한 셀프리더십 하위 요인 중 행위중심과 자연적 보상이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통계적 관점으로서 이 두 변수가 인지적 유연성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설적사고패턴 변수가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두 변수가 상대적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근거로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이 두변수가 다양성선호 유연성과 강한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다음은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대학의 무용전공자는 무용예술이라는 장르를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무용에 대한 의미성을 크게 가져야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데서 셀프리더십이 고려되는데 특히 긍정적인 사고와 관련된 건설적사고패턴이 다양성선호 유연성에 관계하기 때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적 사고패턴은 신념과 가정(假定)에 대한 관리를

비롯하여 정신적 이미지 즉 상상적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관리[18]해야 하는데, 이는 무용전공자의 성공적인 무용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무용수의 건설적 자기패턴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인지적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이는 곧 무용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성 있는 활동을 피할 수 있으며, 중국에는 무용공연 성과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셀프리더십이 복잡성 선호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과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복잡성 선호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적 사고패턴 유연성은 복잡성 선호 유연성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자 자신이 무용 활동을 하게 만드는 잠재적 동기는 무용자체에 내재된 자연적 보상에 기인한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을 비롯하여 자신이 일인자라는 느낌 등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일어나 복잡성 선호 유연성이 증대됨[19]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무용전공자의 복잡성 선호 유연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18].

따라서 대학 무용전공자의 복잡성 선호 유연성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증대를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보상전략과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을 강구해야[17]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연적 보상 전략은 무용전공자 자신이 무용 활동 및 연습에 대한 스스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8]. 이는 무용 활동내의 내적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용전공자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적보상은 무용 활동 자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수의 자기효능감이 증대되고 이는 공연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20]. 백운옥[8]의 연구에서도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은 자기관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이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연적 보상 전략의 또 다른 유형으로 무용 활동환경 여건의 재설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용 활동과 인접한 활동환경을 재설계하거나 무용 활동의 시간과 장소를 능동적으로 변경하여 동기유발의 신선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19]. 한편 건설적 사고 패턴의 전략은 역시 무용전공자 자신의 생각 속에서 건설적이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습관이나 패턴을 가지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이 인지적 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무용지도 현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4년제 대학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들이며, 최종분석에는 282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다양성 선호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행위중심, 자연적 보상 셀프리더십은 다양성 선호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과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복잡성 선호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건설적 사고패턴 유연성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중심 셀프리더십은 복잡성 선호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무용전공자가 셀프리더십이 충만할 경우 인지적 유연성이 증대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건설적 사고패턴 셀프리더십을 가진 무용전공자일수록 다양성 선호 및 복잡성 선호 유연성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나 무용전공자가 건설적 사고패턴의 셀프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서도 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의 이론적, 현장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무용수들에게 셀프리더십과 인지적 유연성은 무용활동 및 성과에 유용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에 따라 무용분야에서 이 요인들의 결정요인 및 결과요인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현실에서 셀프리더십 및 인지적 유연성 연구가 이루어졌다는데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가 향후 관련 연구에서 기초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결과 무용 현장에서도 셀프리더십 요인을 성과 향상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용전공자의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컨트롤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이 연구결과는 셀프리더십과 인지적 유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집단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공유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집단적 차원에서는 무용전공자가 스스로 동인될 수 있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사고 방식과 마인드 컨트롤의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몇몇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결과 요인으로서 인지적 유연성만을 투입하여 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및 인지적 유연성의 결정요인 및 결과요인을 다양하게 투입하여 이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면 한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무용전공 대학생들로 한정지어 연구하였으므로 무용분야의 다양한 직군들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무용전공 중, 고교생과 예술 중, 고교생, 직업무용단원 등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였으면 한다.

셋째, 이 연구는 응답자의 자기평가 기입 시 나타나는 오류를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1] C. C. Manz, "Self-leadership :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pp.585-600, 1983.
- [2] 김명주, 김정련, "무용전공자이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 및 공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제2호, pp.232-240, 2010.
- [3] 김연선, "셀프-리더십이 팀워크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특급호텔 Wine & Dining Restaurant 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4] 김지은, "서번트 리더십, 셀프-리더십, 조직 공정성이 조직유효성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5] 안상태, "학교장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코치의 셀프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6] 장제익, "체육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조직헌신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7] 남원희, "직업무용단의 멘토관계기능과 단원들의 셀프리더십 및 직무인장, 혁신행동, 팀효과성의 인과적 관계분석",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8] 백운옥, "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 관리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9] 김쌍연, "상사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과 구성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에 관한연구", 울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10] J. J. Canas, I. Antoli, I. Fajardo, and L. Salmeron, "Cognitive inflexibility and the development and use of strategies for solving complex dynamic problems: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training," *Theoretical Issues in*

Ergonomics Science, Vol.6, No.1, pp.95-108, 2005.

- [11]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51-67, 1977.
- [12] 홍숙지, "개인 유연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3] D. L. Paulhus and C. L. Martine, "Functional flexibility: A new conception of interpersonal flex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pp.88-101, 1988.
- [14] R. Helson, T. Elliot, and J. Leigh, "Number and quality of roles: A longitudinal personality 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14, pp.83-101, 1990.
- [15] 하순복, "셀프 리더십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6] 송보라, 이기학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관계에서의 이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9.
- [17] C. C. Manz and H. P. Jr. Sims, "New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San Francisco, CA:Berrett- Koehler, 2001.
- [18] 김남현, *슈퍼리더십*, 경문사, 2002.
- [19] S. Williams, "Personality and self-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7, No.2, pp.139-155, 1977.
- [20] 홍순복, "세무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이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제10호, pp.326-333, 2010.

저 자 소 개

성 소 영(So-Young Sung)

정회원



- 1998년 8월 : 중앙대학교 무용교육(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 2009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 무용학, 무용콘텐츠, 문화산업